

채림 CHAE RIM

Nature Meets Nature, Art Meets Art - 숲의 사색 The Musing Forest



춤추는 버드나무 *Dancing Willows*

2017

목판에 자개, 22K 금도금 실버, 천연 옷칠

122x162cm

전시개요

전 시 명 : **채림 개인전**

‘Nature Meets Nature, Art Meets Art - 숲의 사색’

전시기간 : 2017년 12월 22일(금) - 2018년 1월 28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17점, 설치 1점

담 당

우정우 wcu@hakgojae.com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71222-20180128 채림_Nature Meets Nature Art Meet Art - 숲의 사색

1. 전시개요

학교재갤러리는 2017년 12월 22일(금)부터 2018년 1월 28일(일)까지 **채림**(1963~, 서울) 개인전 **‘Nature Meets Nature, Art Meets Art (부제: 숲의 사색 The Musing Forest)’**를 연다. 채림은 전통 공예 기법을 응용하는 작가다. 붓과 물감 대신 옷칠과 자개, 순은을 사용하여 독특한 풍경화를 만들어 낸다. 수십 번의 거듭된 옷칠과 정교한 조형 기술을 통해 나무껍질이나 넝쿨 같은 이미지들을 현대식으로 형상화한다. 기존의 어느 매체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특유의 색감과 광택, 질감을 갖춘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만든다.

채림은 옷칠과 자개라는 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해 현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세련된 화면을 구성한다. 전체적인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면 고전적인 철학과 정신을 현대미술의 어법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이 드러난다. 이는 ‘옛것을 배워 새것을 창조한다(學古創新·학교창신)’는 학교재의 이념과도 맞닿는 부분이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전시로 채림의 개인전을 마련한 이유다. 전시는 학교재갤러리 본관에서 열린다

2. 전시주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가교, 채림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채림은 목판 위에 옷칠을 수없이 반복 해 깊은 색감의 배경을 마련한다. 그 위에 자개, 보석 등 전통적인 공예 재료를 오밀조밀 붙여 독특한 풍경화를 만들어낸다. 옷칠한 목판 위에 자개로 자연의 풍경을 수놓듯 그려내는 채림의 기법은 일견 나전칠기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 공예 기법인 나전칠기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 검고 매끄러운 배경 위에 천연 자개 특유의 영롱한 빛깔이 어우러져 화사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채림은 전통적 기법과 재료를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조형을 추구한다. 작업 과정 에서도 고전적 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방식을 꾸준히 탐구하고 실험한다. 예를 들어 전통 나전칠기 기법에서처럼 자개에 아교를 칠해 인두로 납작하게 지지 붙이지 않고, 옷칠한 배경 위에 자개들을 브로치 달 듯 부착하여 빛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고전적 공예품에서 장식적으로 납작하게 얹드려 있던 자개 문양들이 채림의 화면 위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 숨쉬는 듯하다.

디자인적 모티브와 재료를 순수미술 화면으로 끌어오다

채림은 전통 장신구의 본래 용도를 버리고 그것들이 지닌 아름다움 그 자체를 바라본다. 장신구의 디자인적 모티브와 재료들을 순수미술의 화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자개, 순은, 호박, 산호, 비취, 청금석, 호안석 등 아름다운 전통 보석들을 그림의 배경 위로 가져오면 그것들은 저마다의 색채와 형태 그리고 질감을 지닌 회화적 소재로 탈바꿈한다. 순수미술의 세계에서 이 보석들은 장신구의 재료가 아닌,形形色색 아름다운 입체적 도형들이 되어 제각기 새로운 생명력을 뿜어낸다. 채림은 이것들을 소재 삼아 그림 그리듯, 콜라주 하듯 자신만의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보석 디자이너 출신의 작가답게 화면 구성에서도 세련된 디자인적 미감이 돋보인다. 채림은 늘 디자이너로서의 미감과 순수미술 작가로서의 신념을 융합하여 그만의 차원 높은 미술세계를 형성한다. 그는 조각적인 회화 또는 회화적인 조각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어느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조형 어법을 찾아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채림 작품의 핵심인 옷, 보석 그리고 자개

작가는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옷나무에서 추출한 재료와 한국 전통 공예의 재료인 자개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미를 조화롭게 구현해 낸다. 옷칠은 한국, 중국, 일본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 정통 공예 기법이다. 중국은 칠에 칠을 더하는 조칠기법, 일본은 금속가루를 사용하는 마끼에기법, 한국은 소라나 전복 껍데기를 잘라서 사용하는 나전 칠기법을 써왔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가의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연구가 녹아있는 옷칠기법이 사용된다. 초기 작품에는 옷칠의 색상과 실버, 자개의 입체감 표현에 집중했다면, 최근 작업은 새로운 옷칠기법으로 표현하는 숲의 형상과 작가로서의 숨결을 작품에 녹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작가는 생칠(옷나무 표피에 상처를 내면 상처로부터 유희백색의 유액상 수지가 나오는데 그걸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 토칠(토분과 옷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칠하는 방식), 흑칠(옷칠에 칠하는 방식)이라는 전통 기법들을 통해 다양한 구성의 옷칠 작품을 완성한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한국적 색채 혹은 아시아적 색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작가도 찾지 못하는 작가도 있다. 채림 또한 그와 같은 고민을 했고 자신의 특기인 보석 디자인과 옷칠을 활용해서 그 고민을 풀었다. 30 ~ 40 여 회의 옷칠과 연마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바탕화면의 제작과정 중간 중간에 자연과 교감하였고, 오랜 시간과 지난한 행위의 반복을 겪으면서 그 기다림의 결실로 풍부한 깊이감과 색채감을 가진 자신만의 색과 형태를 완성시켰다.

장인과 함께 써 내려가는 채림만의 예술세계

채림은 2014 년 작가로 데뷔하기 전인 2000 년부터 보석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현재까지도 그 당시 인연을 맺은 장인들과 작업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일반적인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순금이나 순은, 고가의 보석이 아닌 도금이나 도은, 수정 등의 작품의 재료로 쓰인다. 하지만 채림은 가공하지 않은 재료들을 작품제작에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

또한 표면 위에 아교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40 년 이상 보석세공 기술을 연마한 기술장인과 협업을 하여 귀금속 제작과정에서 보석을 잡아주는 프롱 세팅 방법을 사용해 장식을 한다. 프롱 세팅 방식에 사용하는 재료 또한 순은을 사용해서 진행한다. 목판에 박아서 고정하는 프롱 세팅 방식은 재미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작품을 벽에 걸고서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의 각도와 세기에

따라 자개와 보석들이 흡사 물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그림자 효과를 보여준다.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문양과 느낌을 기술 장인과 협의하고 기술 장인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제작에 완성도를 올렸다. 이렇게 완성되는 작품은 평면적이지만 입체적이고, 전통적이지만 현대적이고, 회화이면서 조각이 되는 여러 부분을 융합한 작품이 된다.

3. 작품소개

대표작품



소나무 Pine Tree
2015
자개, 실버 925, 천연 옷칠
122x150x30cm

<소나무>(2015)는 작가의 조형 작품 연작의 첫번째 작품이다. <숲 속을 거닐며>(2014-2017)와 함께 현재 작가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인 소나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소나무의 솔은 '수리'라는 순수 우리말로 으뜸을 뜻한다. '우리 민족은 소나무 가지를 꽃아 태어났음을 알리고,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면서, 소나무 장작을 태워 지은 밥을 먹고 살다가, 소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죽는다'는 말처럼 한국인과 소나무는 오랜 시간 함께해 왔다.

<소나무>(2015)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을 모티프로 영원히 푸른 소나무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자개와 실버 모티프에 그라데이션을 이용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두 단으로 표현된 소나무의 형상은 웅장한 자태를 보여준다. 화이트 골드로 도금된 실버 아랫단과 자개가 세팅된 블랙단의 대비로 볼륨감을 더욱 극대화했다. 실물보다 큰 크기의 소나무 가지에 바늘처럼 뾰족한 잎들이 돌아난 모습을 표현했다. 옷칠한 'ㄷ'자의 좌대는 땅에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두 팔을 뻗은 듯한 모양으로,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춤추는 버드나무 *Dancing Willows*

2017

목판에 자개, 22K 금도금 실버, 천연 옷칠

122x162cm

<춤추는 버드나무>(2017)는 채림이 프랑스 지베르니의 정원에 다녀 온 후 그곳에서 본 풍경과 느낌에 영감을 받아 작업한 작품으로 지금까지의 옷칠기법과는 다른 기법으로 작업한 작품이다. 옷칠 작업의 특성상 원하는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했다.

작가는 '자고 일어나면 붓을 여러 개 들고 점만 찍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을 만큼 이 작품을 제작하는 데 많은 노동력을 투자했다. 정성스레 배경 색상을 마련한 뒤 그 위에 점묘하듯 무수히 많은 점을 찍었다. 또, 옷이 물보다 기름과 더 잘 섞이는 특성을 이용해 색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수채화나 유화와는 다른 독특한 단청색 색채 띠를 완성했다. 옷칠로 붓의 터치를 쌓아 창조해낸 색의 향연이다



프라나 *Pr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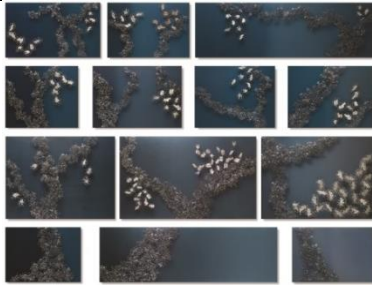
2017

목판에 자개, 22K 금도금 실버, 24K 금박, 천연 옷칠

32x59cm, 72x48cm, 90x45cm, 60x40cm

작품명인 <프라나>(2017)는 힌두 철학에서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 우주의 근원적 생명에너지와 기, 생명의 원리를 뜻하는 말이다. 24K 금박을 옷칠 위에 입혀 화려한 문양을 표현했다.

채림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구스타브 클림트의 작품들을 떠올렸다고 한다. 구스타브 클림트에게 바치는 찬가와 같은 작품이라는 언급을 덧붙인다. 금세공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클림트는 자연스레 금박 등을 이용해 신비롭고 화려한 양식의 작품을 만들어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작가 또한 보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금빛의 에너지를 생명의 근원적인 힘과 같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



숲 속을 거닐며 *Walking in the Forest*
2014-2017
목판에 자개, 실버 925, 천연 옷칠
총 17pcs

숲에 대한 환상과 평온함을 사랑하는 작가는 '작품들을 통해 예술로 이루는 숲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숲 속을 거닐며>(2014-2017)를 통해 숲의 광활함과 신비로운 이미지를 구현해내고자 했다. 반복적인 옷칠로 깊이 있는 색감의 배경을 마련한 뒤 자개 문양을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폴 세잔은 사과와 생 빅토와르산을 수십번, 수백번에 걸쳐 그린 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라' 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예술 작품에서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기존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채림은 수많은 실험 끝에 자신만의 옷칠 채색기법을 구축했다. 이 독창적 기법에 대해 스스로 '제멋대로 기법'이라고 이름 붙였다며 작가는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들 역시 자유롭게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숲의 사색'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7 개 화면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작가가 추구하는 '자연의 선이 가진 아름다움'을 화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보인다. 영롱한 푸른빛을 띠는 배경 위에 금속과 자개로 조형한 전통 문양들이 자유자재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 잔잔한 노래처럼 반복되는 형태들이 우아함을 자아낸다. 작은 요소들이 모여 커다란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숲 속을 거닐며>(2014-2017)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보다도 음악적인 감각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면의 사용과 그 사이로 남긴 공간들이 갖는 독자성에 있어 한국 소나무의 형태를 연상토록 한다는 점 또한 인상깊다.

4. 작가소개

채림은 1963년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색을 사랑해 색연필 등 미술 재료를 좋아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떠난 파리 여행에서도 3단 색연필 세트를 사서 여정 내내 이고 지고 다닌 기억이 있다. 보석 디자이너로 일할 당시에도 재료의 색채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바이올렛 펄, 초콜릿 펄 등 독특한 색을 지닌 재료를 외국 브랜드들보다도 먼저 접해 사용해보곤 했다. 이러한 색채 사랑은 최근의 작업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옷의 기본적인 색상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작품에 입힌다. 전통의 현대화다.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채림은 자신의 작업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법과 재료를 고수하는 데에 사명감을 느낀다. 2015년도 카루젤 뒤 루브르(파리)에서 열린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이후 그 신념이 더욱 굳어졌다. 당시 외국 관람객이 던진 '우루시'(うるし·옷칠) 작가냐는 질문에 충격을 받은 탓이다. 고유한 역사를 지닌 우리의 옷칠이 서구에는 일본어인 '우루시'라는 통칭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불편했다. 다음 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살롱 아트 쇼핑>(2016)에서 채림은 100호 크기 벽면에 우리 옷칠의 역사와 그 과정에 대해 자세한 글을 써 선보였다. 유럽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 그 글을 읽고, 감동해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1986년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9년에는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국제보석감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국제앙드레말로협회와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2016년 프린스턴 갤러리 (뉴저지, 미국), 갤러리 BDMC (파리), 에이블 파인아트 갤러리 (뉴욕) 등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연달아 개인전을 열었다. 사치갤러리 (런던), 그랑팔레 (파리), 피어 94 (뉴욕) 등 국내외 우수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 참여 했다. 뉴욕 아트엑스포 (뉴욕),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제30회 일본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아시안 패시 어워드 (JDMI 시그니티, 홍콩)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채림, 숲의 사색

서성록(안동대 교수, 미술평론가)

채림은 자연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다. 작품에는 짙은 녹음의 숲과 조용한 연못이 있고, 어스름한 저녁 풍경이 등장한다.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내민 야생화들도 볼 수 있다. 들꽃과의 눈인사, 입맞춤에 이어 숲과의 속살거림이 화면을 채운다. 작가는 초목과 짐승들을 감동시킨 오르페우스(Orpheus)처럼 자연의 노래를 연주하며 그의 벗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작가가 작품의 주된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은 숲과 나무와 같은 자연이다. 붓과 물감 대신에 옷칠과 자개, 순은을 사용하여 이색적인 풍경화를 만들어낸다. 평소 숲과 나무를 좋아하는 작가는 모네(Claude Monet)의 지베르니 정원을 방문하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모네가 설계하고 가꾼 이 정원은 불후의 명작 <수련>의 장소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을 보면 꽃과 열매를 비롯하여 호젓한 숲 속의 분위기를 차분히 실어내고 있다. 자연을 주제로 한 서양의 회화가 '대상지시적'이거나 '자아투사적'이라면, 그의 작품은 '자연의 관조'에서 오는 '맑은 기운'을 오롯이 살려냈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숲 속을 거닐며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식물성 이미지이다. 화면 곳곳에 덩굴인지 나뭇잎인지, 또는 나뭇가지인지 뚜렷하지 않은 선들이 서로 교차하고 영키고 겹치며 미끄러지는 등 여러 표정을 짓는다. 화면을 부유하는 생태 이미지들은 화면을 장식하며 덩굴처럼 주위로 퍼져가는 확장성을 띤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반경을 넓혀가며 급기야 거대한 흐름으로 바뀐다.

신비로운 숲의 모습을 담은 <숲 속을 거닐며>(Walking in the Forest, 2014-2017)는 이런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데 처음 7 개 피스로 시작하였던 것이 9 개 피스로, 13 개 피스로 늘어나, 이번 학교재 갤러리에서 갖는 개인전에는 17 개 피스로 대폭 늘어났다. 이것들을 모두 펼쳐놓으면 인적이 끊긴, 깊은 숲 속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결, 짙은 숲의 향기, 쓸쓸하고 고적한 기운, 청량한 공기가 보는 사람을 다독거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작품이 물감 튜브에 의한 것이 아닌, 전통 공예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작가는 수 십 번의 거듭된 옷칠로 정지작업을 한 다음 순은으로 나무껍질의 텍스처어를 만들어 운치 있는 숲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굳이 유채라는 재료를 피하고 옷칠을 사용한 데에는 그가 보석디자인을 전공하였다는 배경도 작용했지만 유채에서 느낄 수 없는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고집이 반영된 탓이 크다. 실제로 옷칠화의 작업과정은 40 여 회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등 고난도의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작가는 기존의 어느 매체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고유의 색감과 광택, 질감까지 갖춘 효과를 얻어낸다. 이 작업은 끈적끈적한 점성과 온도의 예민함과 같은 재료의 속성상 이것을 다룰 때는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된다. 이런 까다로운 특성이 오히려 작가의 열정을 살려내고 있지 않나 싶다.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 나온 표면은 특유의 광택과 우아한 빛깔로 자연이 부여하는 아름다움을 발휘하게 된다. 게다가 작가는 옷칠과 자개라는 전통적인 소재에 수묵화에서나 볼 수 있는 여백, 절제미를 가미해 품격을 더해주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자연의 관조와 사색을 느끼게 된다. 우울한 소식이 그칠 날이 없는 이 세상에 들려줄 노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만큼 뜻깊은 일이 어디 있으랴.

고요함의 자리

그의 작품들은 감상자에게 사색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 식물 이외에 특별한 이미지들을 기용하지 않으며 모티브가 강조되도록 하고 있다. 즉 표현이 억제되어 있는 것 같으나 이로써 '고요함'을 통한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학교재 갤러리의 개인전에 전시되는 <숲 속 바람의 노래>(Song of the Wind in the Forest, 2016-2017), <고향의 봄>(Spring in My Hometown, 2017), <복숭아, 살구꽃, 아기 진달래>(Peach Flower, Apricot Flower and Baby Azalea, 2015-2017), <소나무>(Pine Tree, 2015), <춤추는 버드나무>(Dancing Willows, 2017) 등이 대부분 그런 특성을

지닌다. 『채근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바람과 꽃의 산뜻함과 아름다움은 오직 조용함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 주인이 된다고 했듯이, 채림의 작품이 정한(靜閑)의 특성을 갖는 것은 바람이 자고 숲의 물결이 잔잔한 가운데서 인생의 진미를 느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간직한 한가롭고 명상적인 세계는 우리를 고즈넉한 세계로 안내해준다.

확실히 '고요함'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문명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대가로 끊임없는 소리와 소음을 받아들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내부에 침묵의 자리가 없다면 언어는 진실과 미에서 분리된 불완전한 것이 되리라'(Max Picard)는 사실에 동의하게 된다.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은 침묵의 회복력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소음이 들끓고 속도가 종횡무진 폭주하는 시대에 채림 작가가 그런 문제를 주제화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근래 작가는 국내에서의 전시뿐만 아니라 뉴저지 프린스턴 갤러리, 파리 BDMC 갤러리, 뉴욕 에이블 파인아트 갤러리 개인전을 소화해냈는가 하면 뉴욕 아트 엑스포에서 '솔로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에는 사치갤러리가 주관하는 '스타트 아트페어'에 선정되어 발표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처럼 작가가 여러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공예기법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훌륭한 미술작품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의 식물성 이미지를 보고 있다면 일상의 찌뚱과 분주함의 자리에 어느새 서정의 자락이 내려앉은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의 작품은 나무숲 사이를 걷다가 한적한 곳에 핀 꽃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처럼 자연과의 조우, 생명과의 조우를 수반하고 있다. 이런 만남은 보는 사람에게 예기치 못했던 '한 다발의 설렘과 기쁨'을 선사해주리라 생각된다.

6. 작가약력

채림

1963 서울 출생

1986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198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 2009 국제보석감정사 취득
- 현 국제앙드레말로협회 회원,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 회원
-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

개인전

- 2017 Nature Meets Nature, Art Meets Art – 숲의 사색, 학교재갤러리, 서울**
 숲의 노래,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숲의 노래, 에이블 파인아트 갤러리, 뉴욕
 숲에서 나를 만나다, 라우갤러리, 경주
- 2016 공명, 갤러리 BDMC, 파리
 프린스턴 갤러리, 뉴저지, 미국

단체전

- 2017 아트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가오슝, 타이완
 위드아트페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서울
 아트 타이베이,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타이베이
 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스타트 아트페어, 사치갤러리, 런던
 아트 제주, 하얏트 리젠시, 제주
 아트 부산, 벡스코, 부산
 뉴욕 아트엑스포, 피어 94, 뉴욕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 2016 프랑스-독일 박람회, 쿤스트라움 99, 쾰른, 독일
 살롱 아트 쇼핑,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아트 3F, 브뤼셀 엑스포, 브뤼셀
 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인생, 5th 베이스 갤러리, 런던
 아트 3F, 툴루즈 전시공원, 툴루즈, 프랑스
 파리 - 뉴욕, 스페이스인아트, 뉴욕
 뉴욕 아트엑스포, 피어 94, 뉴욕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한·인 현대미술 - 한국의 열정, 인도를 만나다, 인도문화원, 뉴델리, 인도,

- 2015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DK 2015 – 코리아 주얼리 디자인, 킨텍스, 서울
 한·중 문화예술제 – 영웅 안중근, 하얼빈의 꽃으로 피다, 하얼빈, 중국
- 2014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필라 코리아 세계우표전시회, 코엑스, 서울
- 2013 청와대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청와대사랑채, 서울
 세계패션페어, 콘래드, 서울
- 2012 청와대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청와대사랑채, 서울
- 2011 세계패션대상 – 포멀 스타일 갈라, 그랜드하얏트, 서울
- 2010 G20 영부인을 위한 포멀 스타일 갈라, 그랜드하얏트, 서울
- 2009 서울 디자인 올림픽 –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주얼리 디자인, 잠실종합운동장, 서울
 한국금속공예 현대작가 100 인전, 갤러리 각, 서울
- 2008 포멀스타일 포럼 (한국포멀협회 주최), 호텔리츠칼튼, 서울
- 2007 베라 왕 & 로베르도와 주얼리 패션쇼 (까사 & 동아 TV 주최), 한국해비타트, 서울
- 2006~2016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전

수상

- 2017 솔로 어워드, 뉴욕 아트엑스포, 뉴욕
- 2016 금상,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대상, 제 15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5 유진 폰트네 상, 국제문화유산박람회 – 국제앙드로말로협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 2013 선정,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금상 (중소기업청장상), 제 14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4 금상 (중소기업청장상), 제 13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3 입선, 제 5 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행정자치부, 서울
 입선, 제 32 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디자인부문, 한국미술협회, 서울
 특선, 제 9 회 국제귀금속장신구대전,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서울
- 2009 입선, 제 44 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 2008 특선, 제 27 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디자인부문, 한국미술협회, 서울
 특선, 경기디자인전람회, 코리아디자인센터, 성남

- 금상 (특허청장상), 제 7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05 특별상, 제 30 회 일본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 입선, 제 30 회 일본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 2001 아시안 패시 어워드 위너, JDMI 시그니티, 홍콩
- 동상, 제 28 회 일본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